

『栢巖先生文集』에 收錄된 敎書文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King's Message in *Baekamseonsaeng-munjip*

朴文烈 (Park, Moon-Year)*

◁ 목 차 ▷

- | | |
|----------------|------------------|
| 1. 緒言 | 3.2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 |
| 2. 栢巖의 生涯와 思想 | 4. 松塘 俞泓과 敎書文 |
| 2.1 栢巖의 生涯 | 4.1 松塘 俞泓의 評價 |
| 2.2 栢巖의 思想 | 4.2 <敎威鏡監司俞泓書> |
| 2.3 『栢巖先生文集』 | 5. 結論 |
| 3. 宗系辨誣와 頒赦敎書文 | <참고문헌> |
| 3.1 宗系辨誣 | |

< 초 록 >

본 연구는 栢巖 金玃(1540-1616)의 『栢巖先生文集』에 수록된 敎書文에 관하여 考究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栢巖은 嘯阜 朴承任(1517-1586)과 錦溪 黃俊良(1517-1563) 및 退溪 李滉(1501-1570)의 門下에서 受學하였다. 忠直한 爲政思想과 勤勉充實한 牧民思想의 소유자였을 뿐 아니라, 奉先思想和 顯揚思想 그리고 愛鄉心和 儀節心도 강한 人物이었다. 저술로는 『栢巖先生文集』 6卷 4冊이 있다.

(2) 『栢巖先生文集』 卷3의 敎書篇에는 栢巖이 王命으로 찬술한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와 <敎威鏡監司俞泓書> 등의 敎書가 수록되어 있다.

(3)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1584(선조 17)년 11월에 宗系辨誣가 일단락된 뒤에 宣祖의 命으로 撰述된 敎書文이다. 『宣祖實錄』과 『光國志慶錄』에 수록되지 않고 있으나 史料로서 귀중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敎書이다.

(4) <敎威鏡監司俞泓書>는 1581(선조 14)년 1월에 宣祖가 후일 宗系辨誣를 定決하고 平難功臣과 光國功臣으로 策勵되는 松塘 俞泓을 威鏡道觀察使로 보내면서 내린 敎書이다. 宣祖의 命으로 撰述된 敎書임에도 『宣祖實錄』과 『松塘集』에 收錄되지 않고 있으나 當時의 北邊事情을 짐작할 수 있는 史料로서 귀중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敎書이다.

要語: 栢巖, 金玃, 『栢巖先生文集』,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 <敎威鏡監司俞泓書>, 俞泓, 『松塘集』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敎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0년 5월 11일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2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22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King's Message included in *Baekamseonsaeng-munjip* by Baekam(栢巖) Kim Reuk(金玃, 1540-1616).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Baekam studied under Park Seungim(朴承任, 1517-1586), Hwang Junryang(黃俊良, 1517-1563) and Yi Hwang(李滉, 1501-1570). He was not only a faithful politician who governed the people kindly, but also a very courteous and patriotic person who sincerely respected his ancestors and his native place. The *Baekamseonsaeng-munjip*, 6 volumes in 4 books, is the collection of his works.

(2) In the third volume of the *Baekamseonsaeng-munjip*, the King's Messages titled as *Jongyebyeonmu-bansajungoegyoseo* and *Gyohamgyeonggamsa-Yuhongseo* are contained. These two messages were written by the order of King Seonjo.

(3) Although *Jongyebyeonmubansa-jungoegyoseo* was written by the order of King Seonjo in 1584, it was not recorded in *Seonjo-silrok* and *Gwangguk-jigyeongrok*. However, it is still a valuable historical material.

(4) *Gyohamgyeonggamsa-Yuhongseo* was written, when King Seonjo later appointed Songdang Yu Hong the governor of Hamgyeong Province in 1581. It was not recorded in *Seonjosilrok* and *Songdangjip*, but still a very useful material which could show the circumstances of northern frontiers at that time.

Keywords: Baekam, Kim Reuk, *Baekamseonsaeng-munjip*,
Jongyebyeonmu-bansajungoegyoseo, *Gwangguk-jigyeongrok*,
Gyohamgyeonggamsa-Yuhongseo, Yu Hong, *Songdangjip*

1. 緒言

朝鮮時代 明宗朝·宣祖朝·光海君朝의 人物이었던 栢巖 金玔(1540-1616)에 대하여는 「栢巖先生文集」의 著者로만 알려져 오다가 최근 들어 栢巖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論稿¹⁾가 發表되었을 뿐이다.

「栢巖先生文集」卷3의 敎書篇에는 栢巖이 王命으로 起草한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와 <敎咸鏡監司俞泓書> 등의 敎書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자세한 分析이나 研究는 없었던 듯하다.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宗系辨誣가 일단락된 이후에 宣祖에 의해 中外에 頒布된 敎書임에도 「宣祖實錄」에조차 收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宗系辨誣의 決定版인 「光國志慶錄」에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光國志慶錄」에 수록된 <頒赦敎書文>와는 완전히 다른 內容의 文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敎咸鏡監司俞泓書>는 후일 平難功臣과 光國功臣으로 錄勳된 松塘 俞泓(1524-1594)을 咸鏡道觀察使로 보내면서 내린 敎書임에도 「宣祖實錄」에는 물론 松塘 俞泓의 詩文集인 「松塘集」에조차도 收錄되지 않고 있다.

本稿는 「栢巖先生文集」에 收錄된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와 <敎咸鏡監司俞泓書>의 敎書文을 중심으로 宗系辨誣와 「松塘集」과의 關係를 考察함으로써 栢巖 金玔과 宗系辨誣 및 松塘 俞泓의 研究에 一助하고자 한다.

2. 栢巖의 生涯와 思想

2.1 栢巖의 生涯

栢巖 金玔은 字가 希玉이고 號는 栢巖 또는 龜鶴亭이며, 諡號는 敏節이고

1) 栢巖 金玔의 生涯와 著述에 관하여는 拙稿 “栢巖 金玔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8輯. (淸州: 淸州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2009), 79-111>를 參看할 것.

本貫은 禮安(宣城)이다.²⁾ 1540(중종 35)년 3월 9일에 慶尙道 榮川郡 栢巖里에서 아버지 金士明과 어머니 昌原 黃氏 사이에서 次男으로 出生하였으나 곧 伯父 金士文에게로 入系되었다.³⁾

栢巖은 1546(명종 1)년 7세의 나이로 家學을 受學⁴⁾한 뒤 1552(명종 7)년에 嘯阜 朴承任(1517-1586)과 錦溪 黃俊良(1517-1563)의 문하에서 受學⁵⁾하였으며, 1557(명종 12)년에는 退溪 李滉(1501-1570)의 門下에서 受學⁶⁾하였다.

1560(明宗 15)년에 漢城試에 首席으로 合格⁷⁾하고 1564(明宗 19)년에 生員覆試에 合格⁸⁾하였다. 1575(선조 8)년에 式年鄉解에 壯元하고 紹修書院에서 讀書⁹⁾한 뒤, 이듬해 1576(선조 9)년 3월에 37세의 나이로 文科의 丙科로 及第¹⁰⁾하여 出仕하였다.

出仕한 뒤로 宣祖朝에는 承文院의 權知副正字와 假注書 및 藝文館의 檢閱 등을 거쳐 內職으로는 兵曹佐郎·禮曹佐郎·承政院都承旨·司諫院大司諫·成均館大司成·同知義禁府事·承文院提調·同知春秋館事·弘文館副提學·禮曹參判·

-
- 2) 『栢巖先生略傳』에 收錄된 家系圖를 整理한 栢巖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金尙(始祖, 1) - 存誠(2) - 敦富(3) - 希寶(4) - 成世(5) - 鈕(6) - 方軾(7) - 輅(8) - 小良 - 淡(10) - 萬稔(11) - 佑(12) - 士文(13) - 玠(14) - 幾善(15) ...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319>
 - 3)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23.
庚子 三月九日辛丑(寅時) 先生生于榮川郡北 栢巖里第 ... 伯父判書公 取以子之.
 - 4)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23.
丙午 始受學.
 - 5)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24.
壬子 從學嘯阜朴先生(承任)·錦溪黃先生(俊良)之門.
 - 6)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25.
丁巳 受業于退溪李先生之門.
 - 7)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25.
庚申 赴漢城試居魁.
 - 8)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26.
甲子 七月 中生員覆試.
 - 9)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27.
乙亥 九月 魁式年鄉解 冬 讀書于紹修書院.
 - 10)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28.
丙子 三月 中文科(丙科第二十八人).

刑曹參判·戶曹參判·僉知中樞府事·同知中樞府事 등의 주요 官職을 歷任하였으며, 外職으로는 寧越郡守·慶尙道安集使·安東府使·漢城府右尹·慶尙全羅忠淸江原道副體察使·嶺南體察副使·忠淸道觀察使·安東大都護府使 등의 주요 官職을 歷任하였다. 光海君朝에 들어서는 內職으로 成均館大司成·司憲府大司憲 등의 주요 職責을 歷任하였으며, 外職으로는 漢城府左尹 등을 歷任하였다.

그러나 1610(광해군 2)년 6월 71세의 나이로 光海君의 生母인 奉慈殿(恭聖王后)의 儀節을 論劾하다가 江陵府使로 左遷¹¹⁾된 후 1611(光海 3)년 12월에 江陵府使에서 罷職¹²⁾되고 1612(光海 4)년 4월에는 73세의 나이로 鞠問을 받고 下獄¹³⁾되었다가 削奪官職되어 門外黜送¹⁴⁾되었다. 그 후 1614(光海 6)년에 職牒이 還給¹⁵⁾되었으나 1616(光海 8)년 11월 16일에 享年 77세로 卒去¹⁶⁾¹⁷⁾하고 말았다.

栢巖은 卒去한지 4년 후인 1620(광해군 12)년에 士林에 의해 龜城祠堂(龜江書院)¹⁸⁾에 配享되었으며, 卒去한지 37년 후인 1653(孝宗 4)년에는 宣武勳으로

- 11) 春秋館 編, 『光海君日記』, 光海 2年 6月 7(庚辰)日條.
以都承旨李晬光 爲禮曹參判 … 黜金玘爲江陵府使 朴思齊爲咸鏡都事(二人特命也).
- 12) 春秋館 編, 『光海君日記』, 光海 3年 12月 5(庚午)日條.
北道貿穀·木 趁不輸入 嶺東各官 應罷前通川郡守安大楠·江陵府使金玘·高城郡守李晟.
- 13) 春秋館 編, 『光海君日記』, 光海 4年 4月 9(癸酉)日條.
拿來前大司憲金玘鞠問 … 仍下獄.
- 14) 春秋館 編, 『光海君日記』, 光海 4年 4月 10(甲戌)日條.
傳曰 金玘以先朝經輟重臣 非不知事君顯親之道 … 金玘·許筵 竝削官爵 門外黜送.
- 15)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60.
甲寅 還授職牒.
- 16)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57.
丙辰 十一月十五日 感疾 十六日戌時 卒于正寢.
- 17) 春秋館 編, 『光海君日記』, 光海君 8年 8年 12月 2(戊戌)日條.
前大司憲金玘卒 玘 字希玉 號栢巖 端重有經學 早登第 歷揚清顯 至光海辛亥 將追崇生母 玘爲都憲 力言非禮 遂得罪退歸榮川 築室溪上 號龜鶴亭(享清閑之福者數年) 至是卒 邑人祀之鄉賢祠.
- 18) 龜江書院 : 慶尙北道 榮州市에 있던 書院으로 1767(영조 38)년에 기존의 龜山精舍가 승격된 것이었으나 大院君 執權 후인 1868(고종 5)년에 書院撤廢令으로 毀撤되었다. 配享人物은 慶尙道地域의 南人系列의 人物인 撫松軒 金淡(1416-1464), 嘯臯 朴承任(1517-1586), 栢巖 金玘(1540-1616), 望窩 金榮祖(1577-1648) 등이다.

吏曹判書에 贈職¹⁹⁾되고 卒去한지 172년 후인 1788(正祖 12)년 4월 6일에는 朝廷으로부터 ‘敏節’이라는 諡號가 下賜²⁰⁾²¹⁾되었다.²²⁾

2.2 栢巖의 思想

栢巖은 일찍이 家學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13세에 嘯阜 朴承任과 錦溪 黃俊良의 문하에서 從學하고 18세에 退溪 李滉의 門下에서 受學한 인물이었던 만큼 學問的의 水準이나 學脈도 남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에게 學術的으로 顯著한 著述이나 雜著가 달리 없다는 점에서 學問的·學術的 思想의 所有者라기보다는 忠直한 爲政思想과 勤勉한 牧民思想의 實踐者였음을 알 수 있다.

栢巖이 爲政者로서의 役割에 忠直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1590(선조 23)년에 光國原從功臣에 錄勳된 일이라든가 1595(선조 28)년에 大司憲으로서 時務 16條를 上筭한 일이라든가 1605(선조 38)년에 宣武原從功臣으로 錄勳된 것 등이다. 또한 牧民官으로서의 役割에 근면하고 充實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1585(선조 18)년에 寧越郡守로서 寧越郡의 郡弊十事를 上疏한 일이라든가 壬辰倭亂 중이던 1593(선조 26)년에 慶尙道安集使로서 慶尙道の 여러 戰況을 馳啓한 일이라든가 1599(선조 32)년에 忠淸道觀察使로서 農事狀況에 대해 馳啓한 것 등이다.

또한 栢巖은 奉先思想과 顯揚思想이 남달랐던 인물이었다. 스승이었던 鎬

19)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61.

癸巳 以宣武勳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

20) 春秋館 編, 『正祖實錄』. 正祖 12年 4月 6(戊戌)日條.

贈諡 … 贈吏曹判書金功 敏節.

21)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53.

戊申 申贈諡敏節.

22) 拙稿, “栢巖 金功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8輯. (淸州: 淸州大學 校韓國文化研究所, 2009), 80-91.

溪 黃俊良(1563)·退溪 李滉(1570)·嘯臯 朴承任(1586) 등을 뜻하고 知友였던 西厓 柳成龍(1607)을 뜻한 일 등에서 그의 奉先思想을 엿볼 수 있으며, 1600(선조 33)년에 竹溪 吳滉(1540-1617) 등과 伊山書院에 모여 「嘯臯先生文集」의 刊行을 議論하고 「退溪先生文集」이 完成되자 陶山書院에서 會晤한 일이라든가 1606(선조 39)년에 西厓 柳成龍과 「圃隱先生文集」의 校正을 議論한 일이라든가 1610(광해군 2)년에 寒暄堂 金宏弼(1454-1504)·一蠹 鄭汝昌(1450-1504)·靜庵 趙光祖(1482-1519)·晦齋 李彥迪(1491-1553)·退溪 李滉 등 五賢의 文廟從祀를 啓請하여 允許를 받은 일 등에서 그의 顯揚思想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栢巖은 愛鄉心과 儀節心도 강한 인물이었다. 1604(선조 37)년에 五峯 李好閔(1553-1634)·黔澗 趙靖(1555-1636)·蒼石 李竣(1560-1635) 등과 嶺南會를 結成한 것에서 그의 愛鄉心を 엿볼 수 있으며, 1594(선조 27)년에 守愚堂 崔永慶(1529-1590)을 伸救하고자 上筭한 일이라든가 1610(광해군 2)년에 己丑獄死에 희생된 守愚堂 崔永慶 등 東人들의 結백을 上啓한 일과 奉慈殿(光海君의 生母인 恭聖王后)의 儀節을 論劾하다가 江陵府使로 左遷된 일 등에서 그의 儀節心を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栢巖은 忠直한 爲政思想과 勤勉充實한 牧民思想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奉先思想과 顯揚思想 그리고 愛鄉心과 儀節心도 강한 人物이었다.²³⁾

2.3 「栢巖先生文集」

栢巖의 詩文은 그가 卒去(1616)한 후에 家藏의 草稿本으로 若干卷이 전래되어 왔던 듯하다.

「栢巖先生文集」은 栢巖의 死後에 栢巖의 6代孫인 渴睡軒 金埴(1709-1788)

23) 拙稿, “栢巖 金功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8輯. (淸州: 淸州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2009), 91-92.

가 從子인 斗庵 金若鍊(1730-1802)과 族子인 金世鍊에게 草稿本대로 謄寫하여 年代順으로 編次하도록 한 것이 『栢巖先生文集』의 底本이 되었던 것이다.²⁴⁾ 여기에 栢巖의 外孫인 敬窩 金杰(1597-1638)와 從孫인 孤山 金鑿 등이 編次한 <補遺>와 <年譜> 및 <附錄>을 합하여 原集(6권), <補遺>, <年譜>, <附錄> 등 4冊으로 編成된 것이 『栢巖先生文集』의 定稿本이었던 것이다.

渴睡軒 金埴는 이 定稿本을 大山 李象靖(1711-1781)으로부터 校閱을 받은 후에 大山 李象靖의 序文과 자신의 跋文을 앞뒤로 함께 묶어 1772(영조 48)년에 木版本으로 初刊²⁵⁾하였던 것이다.

初刊本 『栢巖先生文集』에 收錄된 編次別 篇名과 收錄內容의 篇數는 다음과 같다.

<表 1> 『栢巖先生文集』의 編次別 篇名과 篇數

| 番號 | 編次 | 篇名 | 篇數 | | 備考 |
|----|------------|-------|-----|-----|----|
| | | | 原篇數 | 原韻數 | |
| 01 | 序 | (李象靖) | 1 | | |
| 02 | 栢巖先生文集 卷01 | 辭 | 1 | | |
| 03 | 栢巖先生文集 卷01 | 賦 | 1 | | |
| 04 | 栢巖先生文集 卷01 | 詩 | 48 | 1 | |
| 05 | 栢巖先生文集 卷01 | 西征錄 | 25 | | |
| 06 | 栢巖先生文集 卷01 | 南征錄 | 45 | | |
| 07 | 栢巖先生文集 卷02 | 詩 | 5 | | |

24) 金功 著, 金埴 編, 『栢巖先生文集』, 附錄. '栢巖先生文集跋'條.
 … 而竊恐世代漸遷 年紀逾逸 蠹篋塵笥之藏 難保其久而無缺 茲與諸宗商議規畫 使從子 若鍊族子世鍊 依草本謄寫 以年條先後釐次之 既又得先祖外孫敬窩金金杰 暨從孫孤山 公鑿 所編年二表 參以狀銘及諸先輩筆錄 裒輯補綴 …

25) 初刊本 『栢巖先生文集』의 形態的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栢巖先生文集 / 金功(朝鮮) 著 ; 金埴(朝鮮) 編. - 木版本. -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英祖 48(1772)].
 原集 6卷, 補遺, 年譜, 附錄 合4冊 : 半郭 21.6×15.5cm, 10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0.7×18.9cm.
 卷首題: 栢巖先生文集
 版心題: 栢巖先生文集
 影印: 韓國文集叢刊 50

「栢巖先生文集」에 收錄된 敎書文에 관한 研究

| | | | | | |
|----|--------|-----|------------|-----|---|
| 08 | 栢巖先生文集 | 卷02 | 西征錄 | 4 | 1 |
| 09 | 栢巖先生文集 | 卷02 | 南還錄 | 83 | |
| 10 | 栢巖先生文集 | 卷02 | 朝天錄 | 10 | |
| 11 | 栢巖先生文集 | 卷02 | 華山錄 | 22 | |
| 12 | 栢巖先生文集 | 卷02 | 臨瀛錄 | 20 | |
| 13 | 栢巖先生文集 | 卷03 | 敎書 | 2 | |
| 14 | 栢巖先生文集 | 卷03 | 疏 | 8 | |
| 15 | 栢巖先生文集 | 卷03 | 筭 | 6 | |
| 16 | 栢巖先生文集 | 卷04 | 筭 | 5 | |
| 17 | 栢巖先生文集 | 卷04 | 啓辭 | 3 | |
| 18 | 栢巖先生文集 | 卷05 | 狀啓 | 10 | |
| 19 | 栢巖先生文集 | 卷05 | 呈文 | 8 | |
| 20 | 栢巖先生文集 | 卷06 | 書 | 10 | |
| 21 | 栢巖先生文集 | 卷06 | 雜著 | 1 | |
| 22 | 栢巖先生文集 | 卷06 | 序 | 1 | |
| 23 | 栢巖先生文集 | 卷06 | 箋 | 4 | |
| 24 | 栢巖先生文集 | 卷06 | 上樑文 | 2 | |
| 25 | 栢巖先生文集 | 卷06 | 祭文 | 11 | |
| 26 | 栢巖先生文集 | 補遺 | 詩 | 4 | |
| 27 | 栢巖先生文集 | 補遺 | 書 | 1 | |
| 28 | 栢巖先生文集 | 卷07 | 年譜 | 1 | |
| 29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上 | 賜祭文 | 1 | |
| 30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上 | 祭文 | 6 | |
| 31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上 | 輓詞 | 33 | |
| 32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上 | 鄉賢祠奉安文 | 1 | |
| 33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上 | 常享祝文 | 1 | |
| 34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下 | 神道碑銘 | 2 | |
| 35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下 | 墓誌銘 | 2 | |
| 36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下 | 記聞錄 | 6 | |
| 37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下 | 道內儒生疏 | 1 | |
| 38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下 | 贈行篇 | 2 | |
| 39 | 栢巖先生文集 | 附錄下 | 擬金某謝除江陵府使箋 | 1 | |
| 40 | 跋 | | (金埠) | 1 | |
| | 合計 | | | 399 | 2 |

「栢巖先生文集」에 수록된 栢巖의 著述은 1차적으로 辭·賦·詩·敎書·疏·筭·啓辭·狀啓·呈文·書·雜著·序·箋·上樑文·祭文 등의 類別로 編次되어 있다. 各類의 下에서는 2차적으로 著述의 年代順에 따라 編次되어 있다.

『栢巖先生文集』의 卷首에는 1772(영조 48)년에 大山 李象靖(1711-1781)의 序文을 비롯하여 目錄이 收錄되어 있으며, 권1-2에는 栢巖의 詩가 수록되어 있고 권3-6에는 栢巖의 文이 수록되어 있다.

卷1에는 辭 1편, 賦 1편, 詩 118수가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詩 144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시편 중에는 特定期間이나 特定事案에 관한 시편들로 編次된 경우도 있다.

권3에는 敎書 2편, 疏 8편, 劄 5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4에는 劄 5편, 啓辭 3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5에는 狀啓 10편, 呈文 8편이 수록되어 있고 書 10편, 雜著 1편, 序 1편, 箋 4편, 上梁文 2편, 祭文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권7에는 栢巖의 <年譜>와 <附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1772(영조 48)년에 지은 渴睡軒 金埴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²⁶⁾

이상과 같이 『栢巖先生文集』에는 退溪 李滉의 門人으로서 宣祖朝와 光海君朝에 여러 官職을 歷任한 栢巖의 論述이 總合되어 있으며, 疏劄와 狀啓 등의 上疏文은 宣祖朝의 對中日外交關係, 黨爭의 向方, 壬辰倭亂 당시의 實情 등을 實務者의 立場에서 쓴 것이라 史料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권3에 수록된 敎書의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1584(선조 17)년에 宗系辨誣가 일단락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한 赦免令을 내린 敎書이며, <敎咸鏡監司俞泓書>는 1581(선조 14)년에 咸鏡道觀察使로 부임하는 松塘 俞泓에게 내린 敎書이다.

3. 宗系辨誣와 頒赦敎書文

『栢巖集』의 卷3에 수록되어 있는 敎書 중의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宗系辨誣와 관련이 있는 敎書이다. 宗系辨誣의 顛末과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

26) 拙稿, “栢巖 金功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8輯. (淸州: 淸州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2009), 92-104.

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3.1 宗系辨誣

宗系辨誣의 發端은 1390(공양왕 2)년에 高麗 朝廷에 대한 叛逆者이자 李成桂(1335-1408)의 政敵이었던 尹彞²⁸⁾와 李初²⁹⁾ 등이 明朝로 도망하여 李成桂가 高麗의 權臣 李仁任(?-1388)³⁰⁾의 後孫이라고 誣告한 것이 明朝의 『太祖實錄』

- 27) 松塘과 관련된 宗系辨誣의 구체적인 研究로는 다음과 같은 論稿가 있다.
- ① 朴文烈, 『忠北의 冊版』. 學術叢書 2. 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6.
 - ② 朴文烈, “『光國志慶錄』의 版本과 校勘.” 『古印刷文化』. 第14輯.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7), 179-220.
 - ③ 朴文烈, “栢巖 金功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8輯. (淸州: 淸州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2009), 80-91.
 - ④ 金虎勇, 『光國志慶錄』에 관한 研究. 淸州, 淸州大學校大學院, 2007. 碩士學位論文.
 - ⑤ 金虎勇, “『光國志慶錄』에 관한 研究.” 『古印刷文化』. 第14輯.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7), 61-108.
- 28) 尹彞(?-?): 高麗의 반역자로 初名은 思康이다. 恭讓王 초에 坡平君이라 詐稱하고 남의 물건을 탈취하다가 明朝로 도망하여 李初와 함께 明帝에게 本國의 恭讓王과 李成桂가 군사를 일으켜 明朝를 치려하며, 이를 반대한 李穡 등 重臣들이 살해되고 禹玄寶 등은 流配되었다고 誣告를 하였다. 이 사실이 明朝에 가있던 사신 趙胖의 歸國報告에서 드러나 李穡과 權近 및 李崇仁 등의 重臣들이 獄에 갇히고 尹彞의 從兄 尹有麟 등은 梟首되었다. 뒤에 誣告임이 밝혀져 李初와 함께 明朝에서 流配되었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566.>
- 29) 李初(?-?): 高麗의 武臣으로 恭讓王 때 中郎將으로 尹彞와 함께 明朝로 도망가서 明朝의 힘을 빌려 侍中 李成桂를 제거하기 위하여 明帝에게 李成桂가 明朝를 치려하며 이에 반대한 李穡과 禹玄寶 등이 禍를 당하였다고 誣告하였다. 이 사실이 당시 使臣으로 明朝에 갔던 順安君 昉과 同知密直事 趙胖 등에게 알려져서 恭讓王 2(1390)년에 國內에서 크게 獄事가 벌어졌으며, 李穡·禹玄寶 등 數十名이 巡軍獄과 淸州獄에 갇혔다. 뒤에 誣告임이 밝혀져 尹彞와 함께 明朝에서 流配되었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745.>
- 30) 李仁任(?-1388): 고려의 權臣으로 본관은 星州이다. 星山君 李兆年의 孫子이며 李褒의 아들이다. 蔭補로 典客寺丞이 되고 뒤에 典法摠郎을 거쳐 恭愍王 초에 左副承宣이 되고, 1359(공민왕 8)년 紅巾賊의 침입 때 西京存無使로서 공을 세워 2等 功臣이 되었으며, 紅巾賊의 2차 침입 때에 開京을 수복하여 1等 功臣에 올랐다. 朝鮮 太宗朝에 明朝의 『太祖實錄』과 『大明會典』에 태조 李成桂가 그의 아들로 기록된 것이 발견되어 이후 오랫동안 교섭 끝에 宣祖 때에 개정되었다. 諡號는 荒繆이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과 『大明會典』에 그대로 載錄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 당시 조선에 『太祖實錄』과 『大明會典』이 傳來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그 뒤 1394(태조 3)년 4월 25일에 明朝에서 欽差內史 黃永奇 등을 朝鮮에 使臣으로 보내면서 함께 보내온 海岳山川 등의 신령에게 告祭하는 祝文의 내용 중에 “옛날 고려 배신 李仁任의 후사 李成桂(지금 이름은 攄)가 혹은 공공연히 사람을 보내서 偵探하기도 하고 혹은 비밀히 사람을 보내서 探情하여 우리 변방의 장수를 유인하기도 하고 바닷가의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기도 하며, 또한 유인하여 나쁜 일을 하게 끄도 한다. 이같이 禍를 만들고 있으므로 즉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고자 하나, 大軍이 국경에 들어가면 살상이 많을 것이므로 아직 경솔히 행동하지 않는 바이다. … 그래도 저들이 멋대로 侮蔑하여 그만두지 않으면 征討軍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기록³¹⁾하고 있는 것에서 처음으로 宗系에 誤謬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朝鮮의 朝廷에서는 1394(태조 3)년 6월 16일에 明朝의 使臣 黃永奇가 歸國할 때에 太祖의 先代 22대의 宗系를 辨誣하고 偵探軍을 보낸 적이 없음을 記錄한 奏文³²⁾을 보내면서 宗系의 修正을 要求하였다. 그 후 明朝에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708.>

31) 春秋館 編, 『太祖實錄』, 太祖 3年 6月 16(甲申)日條.

… 洪武 二十七年 四月二十五日 欽差內史 黃永奇等至 欽奉到告祭海岳山川等神祝文內節該 爲昔 高麗陪臣 李仁任之嗣某今名某者 或明遣人規視 或暗行窺伺 誘我邊戍 殺掠沿海居民 及誘引爲非 如此構禍 卽欲興師問罪 然大兵入境 傷生必衆 所以未敢輕舉 且 高麗 三環海一負山 地方數千里 周回險阻 天造地設 其間主生民者 非帝命不可 今觀李某所爲 似非奉帝命主生民者 予欲昭告上帝 又恐輕易 有煩帝聽 今遣人先告于神 惟神察其所以 達于上帝 彼若肆侮不已 問罪之師 在所必舉.

32) 春秋館 編, 『太祖實錄』, 太祖 3年 6月 16(甲申)日條.

… 竊念臣先世 本朝鮮遺種 至臣二十二代祖翰 仕新羅爲司空 及新羅亡 翰六代孫兢休 入高麗 兢休十三代孫安社 仕于前元 是臣高祖 自後世不受高麗官爵 及元季兵興 臣父子春 率臣等避地東來 以臣相習武才 置身行伍 然臣官未顯達 自高麗恭愍王薨逝 至僞姓辛禔十六年 權臣李仁任·林堅味·廉興邦等 相繼用事 流毒生民 罪惡惡稔 自取誅戮 以臣素心謹慎 無有他過 舉臣爲門下侍中 方與國政 前件事理 臣已曾具本 奏達去訖 臣於仁任本非一李 自臣與聞國政 將仁任所爲不法 一皆正之 反爲其黨所惡 至有尹彞·李初逃赴上國 妄構是非 尙賴陛下之明 已伏厥罪 然其黨與 潛伏中外 忌臣所爲 至今紛紛不已 臣又竊念天人上下 一理洞達 陛下之心 卽上帝之心 臣蒙陛下之德 爲陛下之臣 而明遣窺覬

서 별다른 反應이 없자, 朝鮮의 朝廷에서는 明朝를 상대로 宗系의 誤謬를 修正하고자 여러 차례 使臣을 보내는 등 外交의 努力을 傾注하였다.

<表 2> 宗系辨誣를 위한 使臣의 派遣

| 次數 | 西紀 | 朝 代 | 正 使 | 副 使 | 書狀官 | 典 據 | 結 果 | 備 考 |
|----|------|-------|-----|-----|-----|-------------------|-----------------------|-------------------|
| 01 | 1403 | 太宗 03 | 李 彬 | 閔無恤 | - | 實錄 ³³⁾ | 準他改正欽錄 ³⁴⁾ | 實錄 ³⁵⁾ |
| 02 | 1517 | 中宗 12 | 李繼孟 | 李思鈞 | 李之芳 | 實錄 ³⁶⁾ | 姑待之 ³⁷⁾ | - |
| 03 | 1518 | 中宗 13 | 南 袞 | 李 紆 | 韓 忠 | 實錄 ³⁸⁾ | 特允所請 ³⁹⁾ | - |
| 04 | 1529 | 中宗 24 | 李 菡 | - | - | 實錄 ⁴⁰⁾ | 今將改正 ⁴¹⁾ | - |

暗行窺伺 誘引邊戍 殺掠居民 罪莫大焉 而曰無有 則是罔上也 爲臣之罪 莫大於罔上 無以生於聲教之中矣 苟如罔上 是欺天也 爲人之罪 莫大於欺天 無以容於覆燾之下矣 山川鬼神 森列左右 若苟有欺天罔上之罪 豈不以臣之罪 告于上帝 降禍於臣身 臣不勝惶懼震越之至 謹冒昧以言 伏望聖慈俯加哀矜.

- 33) 春秋館 編, 『太宗實錄』. 太宗 3年 11月 15(己丑)日條.
遣司平左使李彬·驪原君閔無恤 如京師 謝恩兼進宗系辨明奏本也.
- 34) 春秋館 編, 『太宗實錄』. 太宗 4年 3月 27(戊辰)日條.
謝恩使李彬·閔無恤 賀正使金定卿等 回自京師 齋禮部咨文來 其文曰 一 宗嗣事 … 奏乞改錄 一國幸甚 本部尙書李至剛等 欽奉聖旨 朝鮮國王奏 既不係李仁任之後 想是比先傳說差了 準他改正 欽錄.
- 35) 春秋館 編, 『太宗實錄』. 太宗 4年 4月 9(己卯)日條.
遣參知議政府事呂稱如京師 謝改正宗系 放還拘留人 賜列女傳也.
- 36)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12年 10月 17(己未)日條.
奏請使左參贊李繼孟·刑曹參判李思鈞 正朝使同知中樞府事李之芳 等奉表如京.
- 37)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13年 6月 16(甲申)日條.
… 朝鮮國王臣姓諱謹奏 爲陳請乞恩事 正德十三年四月二十一日 陪臣李繼孟回自京師 說稱伏觀大明會典內朝鮮國下註云 李仁任之子 舊諱今名諱者 自洪武八年 至二十五年 首尾凡弑王氏四王 姑待之 聽此不勝兢隕.
- 38)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13年 7月 14(辛亥)日條.
上引見奏請使南袞·李紆 聖節使方有寧·質正官崔世珍 書狀官韓忠·盧克昌 三公竝入參.
- 39)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14年 3月 15(戊申)日條.
奏請使南袞·副使李紆 回自京師 在道爲書馳啓曰 … 又謄寫勅書封進 其勅曰 皇帝勅諭 朝鮮國王(姓諱)爾祖(太祖姓諱)原不係 李仁任之後 我太宗文皇帝已有旨 準令改正 今爾又具奏陳情 誠孝可念 特允所請 降勅諭以朕意 爾其欽承之 故諭.
- 40)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24年 6月 8(辛未)日條.
傳曰 若不改會典之時 則南袞已奏請蒙允 當待其改會典之時 不可煩請 適今會典改修之時 斷不可失機 此事 上下之心 皆爲痛憤 非特臺諫侍從也 予心亦然 改不改 在於上國 豈可預料某事可改 某事不可改 而不奏請乎 決不可不遣奏請使也.

| | | | | | | | |
|----|------|-------|---------|---|-------------------|----------------------|-------------------|
| 05 | 1539 | 中宗 34 | 權 撥 任 權 | - | 實錄 ⁴²⁾ | 可無遺慮 ⁴³⁾ | 實錄 ⁴⁴⁾ |
| 06 | 1540 | 中宗 35 | 金麟孫 林百齡 | - | 實錄 ⁴⁵⁾ | 至降勅書 ⁴⁶⁾ | 實錄 ⁴⁷⁾ |
| 07 | 1551 | 明宗 06 | 韓 崱 | - | 實錄 ⁴⁸⁾ | 進會典寫本 ⁴⁹⁾ | 實錄 ⁵⁰⁾ |
| 08 | 1557 | 明宗 12 | 趙士秀 | - | 實錄 ⁵¹⁾ | 當代未易 ⁵²⁾ | - |

- 41)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24年 10月 26(戊子)日條.
進賀使李茵 聖節使柳溥 還自京師 上引見于宣政殿 柳溥曰 大明會典 宗系改正事 臣入京 卽呈文于禮部 已奉聖旨矣 以其卷帙數多 時未畢印 故臣未知其改與否也 但其禮部題本及聖旨 皆已枚舉 而送付于史館 今將改正矣.
- 42)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35年 1月 5(戊戌)日條.
奏請使(權撥)狀啓曰 臣等到北京 使李應星 語主客司郎中曰 我國宗系事 永樂元年·正德十三年·今皇帝嘉靖八年 累奏聞 奉聖旨改正 而至今未見成書 我國君民 憫鬱罔極 大人備細磨勘 以解一國之憫 郎中曰知道 朝廷必好爲之 其各退去.
- 43)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35年 1月 5(戊戌)日條.
勅曰 皇帝勅諭 朝鮮國王姓諱 爾國數以宗系 明非李仁人之後 來奏我成祖及武宗朝 具有明旨 朕亦具悉矣 但我高皇帝祖訓 萬世不刊 會典所載 他日續纂 宜詳錄爾詞 爾恪供藩職 朕方嘉爾忠孝 可無遺慮也 其欽承之 故諭.
- 44)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35年 2月 15(戊寅)日條.
命世子祭告于宗廟 乃宗系辨誣事也.
- 45)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35年 2月 11日(甲戌)條.
謝恩使金麟孫·林百齡 奉表如京.
- 46)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35年 9月 26(甲寅)日條.
憲府啓曰 國家置譯官 以通彼此之意 爲任甚重 言語相傳之際 稍不以實 爲害必大 頃以宗係改正事 奏請後 至降勅書 實爲一國之慶 ….
- 47)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35年 8月 27(丙戌)日條.
傳曰 世子嘗請曰 改宗系降勅 大慶之後 欲進豐呈 予曰 有旱災 不可爲之 其後更請四[曲]宴 亦不從 近者又累請 出於孝誠 不敢止之 來九月十八日 世子曲宴事 該曹預知之.
- 48) 春秋館 編, 『中宗實錄』, 明宗 6年 8月 13(戊辰)日條.
遣僉知中樞府事韓崱 如京師賀冬至.
- 49)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7年 2月 8(庚申)日條.
禮曹啓曰 冬至使韓崱所進大明會典寫本一卷 下本曹 卽與大臣同議 則庚子年宗系改正勅諭到國 其時卽告宗廟矣 然其勅辭 只諡將改正之意 ….
- 50)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7年 2月 9(辛酉)日條.
三公議 韓崱所進大明會典寫本 其於宗系惡名辨誣之事 明白簡切 依庚子年例 申告宗廟 爲當 他日皇上頒降印本 更行虔告 有何妨乎 傳于政院曰 大臣之議如此 宗系改正 實一國莫大之慶 告宗廟可也.
- 51)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2年 4月 20(癸卯)日條.
傳于奏請使趙士秀曰 每行次 大明會典 雖聞見而來 未聞定奇 故以卿爲奏請使而送之 與聖節使宋麒壽 同議呈文(請改宗系事也) 須至誠爲之 期於得請可也 封太子之奇 亦詳聞而來.

| | | | | | | | | |
|----|------|-------|-----|-----|-----|-------------------|---------------------|-----------------------|
| 09 | 1563 | 明宗 18 | 金 澍 | - | 李陽元 | 實錄 ⁵³⁾ | 明錄國祖 ⁵⁴⁾ | 實錄 ⁵⁵⁾⁵⁶⁾ |
| | 1572 | 宣祖 05 | - | 奇大升 | - | 實錄 ⁵⁷⁾ | - | - |
| 9 | 1573 | 宣祖 06 | 李後白 | 尹根壽 | 尹卓然 | 實錄 ⁵⁸⁾ | 取旨施行 ⁵⁹⁾ | 實錄 ^{60) 61)} |
| 10 | 1574 | 宣祖 07 | 安自裕 | - | 李彥愉 | - | 已蒙裁錄 ⁶²⁾ | 實錄 ⁶³⁾ |
| 11 | 1575 | 宣祖 08 | 洪聖民 | - | - | 實錄 ⁶⁴⁾ | - | - |

- 52)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2年 11月 6(乙卯)日條.
奏請使趙士秀 歸自京師 傳曰 … 若別有聞見 書啓可也 趙士秀書啓曰 … 但此後則會典畢纂 別無致力之事 只待後日頒布後昭示 而後日昭示 亦不過韓嶠謄書之辭云 序班下吏輩皆曰 頒布之事 當代未易爲也.
- 53)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8年 5月 2(己卯)日條.
遣同知中樞府事李友閔·金澍如京師 友閔賀聖節 金澍請改宗系兼進賀.
- 54)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8年 9月 30(乙巳)日條.
奏請使金澍·聖節使李友閔 送譯官韓順等馳啓曰 宗系奏請 已奉聖旨 明錄國祖之父姓諱云.
- 55)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8年 12月 10(甲寅)日條.
憲府啓曰 今此改宗系 誠國家大慶 … 請雜犯死罪 勿錄於赦文之內 答曰 今此改宗系 誠國家無前大慶 而竝赦雜犯死罪 已有庚子年前例 不可改之 故不允.
- 56)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9年 10月 7(丙子)日條.
命官 別試殿試文·武科(爲改宗系別試也 時上未寧慶視事 故命官爲之) 以御筆 書下七等條件 … 仍傳曰 以此發策問之 取進士李光軒等十二人·內禁衛金應湜等三十二人.
- 57)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5年 3月 1(丙戌)日條.
復以奇大升爲大司成 時以改宗系奏請 極選使臣 以大升爲副使 大升以此入朝 道拜大司諫 既至京辭遞 ….
- 58)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6年 2月 28日(己卯)條.
奏請使李後白·尹根壽·書狀官尹卓然 發向中國燕京.
- 59)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6年 8月 12(己未)日條.
奏請使書狀來到 禮部題奏皇帝 皇帝以爲 俟世宗實錄畢修後 更取旨施行 大概只應宗系改正一事, 惡名辨誣一事, 無黑白云 ….
- 60)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6年 9月 18(乙未)日條.
傳曰 庚子·癸亥 宗系許改勅書來後 有別試 今亦依古例爲之.
- 61)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6年 9月 21(戊戌)일조.
上以禮曹所啓 宗系慶事別試 退行於明秋 ….
- 62)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7年 閏12月 15(乙酉)日條.
冬至使安自裕等 送先來通事 啓聞 宗系改正事 已蒙裁錄 上深喜之.
- 63)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8年 12月 1(乙丑)日條.
是歲遣謝恩使洪聖民 兼奏請宗系·弒逆已辨誣等事情 增入會典新書 ….
- 64)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8年 12月 1(乙丑)日條.
是歲遣謝恩使洪聖民 兼奏請宗系·弒逆已辨誣等事情 增入會典新書 禮部尙書萬士和等題曰 朝鮮國王 痛其祖之冤 而奏辨至於再三 但前既奉有明旨 王言一出 昭揭宇宙 信如四

| | | | | | | | | |
|----|------|-------|-----|-----|-----|-------------------|---------------------|-----------------------|
| 12 | 1577 | 宣祖 10 | 尹斗壽 | 金誠一 | - | 實錄 ⁶⁵⁾ | 安心以竣 ⁶⁶⁾ | - |
| 13 | 1581 | 宣祖 14 | 金繼輝 | - | 高敬命 | 實錄 ⁶⁷⁾ | 俱各詳載 ⁶⁸⁾ | - |
| 13 | 1584 | 宣祖 17 | 黃廷彧 | - | 韓應寅 | 實錄 ⁶⁹⁾ | 改正全文 ⁷⁰⁾ | 實錄 ⁷¹⁾ |
| 14 | 1587 | 宣祖 20 | 俞泓 | - | 尹暹 | 實錄 ⁷²⁾ | 會典齋來 ⁷³⁾ | 實錄 ⁷⁴⁾ 75) |

1404(태종 4)년 3월에 謝恩使 李彬과 閔無恤 및 賀正使 金定卿(1345-1419) 등이 宗系를 改正하도록 허락한 禮部의 咨文을 가지고 京師에서 돌아왔으나⁷⁶⁾,

- 時 誰敢輒爲增損 宜將該國前後奏詞 纂入實錄 竣修會典 爲之許載爲便 奉聖旨是.
- 65)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10年 4月 1(戊午)日條.
遣謝恩使尹斗壽·金誠一等 奏請宗系改正事 時謝勅諭恩 兼爲辨誣 送也.
- 66)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10年 9月 1(甲寅)日條.
謝恩使尹斗壽等 回自京師 禮部回咨云 所請宗系·惡名二項 本部悉已遵旨 備載開送 毋庸再奏 其備載之條 宣示陪臣 緣館局纂修理 必少加刪定 且未經御覽 不得輒付錄咨文 該國遵照勅諭內事理 安心以竣 續遣奏請使黃琳 乞將已辨誣事件 詳錄今纂會典新書事情 奉聞于帝.
- 67)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14年 5月 1(癸亥)日條.
以金繼輝爲辨誣奏請使 本國以改宗系之請 遣使頻仍 而中朝難其事 雖被皇旨 添入會典而未蒙頒降 ….
- 68)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14年 11月 1(辛酉)日條.
金繼輝等還自京師 齎禮部移咨而來 咨云 專差陪臣 候領會典全書 無非欲亟雪先世之冤 備查史館於該國項下 已將本王宗系及傳國被誣緣由 俱各詳載 如遇典成 卽請頒賜 不敢遲閣 以虛恩命云.
- 69)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17年 5月 3日(戊寅)條.
宗系奏請使黃廷彧·書狀官韓應寅·質正官宋象賢發行.
- 70)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17年 11月 1(癸酉)日條.
宗系及惡名辨誣奏請使黃廷彧 書狀官韓應寅 等奉勅而還 皇帝錄示會典中改正全文 ….
- 71)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17年 11月 1(癸酉)日條.
上迎于慕華館 告宗廟 受賀 加百官階 宥殊死以下 廷彧·應寅及上通事洪純彥等加資 賜奴婢·田宅·雜物有差.
- 72)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0年 10月 10日(乙丑)條.
謝恩使俞泓·書狀官尹暹等發行 ….
- 73)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1年 3月 28(辛亥)日條.
謝恩使俞泓書狀 大明會典本國宗系 惡名改正一冊 禮部題準給送 皇帝降勅事入啓 ….
- 74)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1年 5月 7(己丑)日條.
上 以宗系改正 莫大之慶 親行告祭于宗廟 遣官行祭于社稷及永寧殿 祭畢御齋殿 ….
- 75)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2年 12月 26(己亥)日條.
上親傳謝恩表 使臣鄭琢·權克智等發行.
- 76) 春秋館 編, 太宗實錄. 太宗 4年 3月 27(戊辰)日條.

동(1404)년 4월에 明朝에서는 是正이 불가하다고 하며 『萬曆會典』의 重修本에서 辨명한 사실을 附記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⁷⁷⁾

이러한 상황은 中宗朝까지 아무런 進展없이 계속되어 오다가 1517(중종 12)년 에 奏請使로 갔던 李繼孟(1458-1523)과 李思鈞(1471-1536) 등이 이듬해(1518) 6월에 돌아와서 『大明會典』 <朝鮮國條>의 註에 “李仁任과 그의 아들 ㄹ이 1373(洪武 6)년부터 1395(洪武 28)년까지 무릇 四朝의 왕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하자, 中宗은 다시 南袞(1471-1527)과 李紆(1480-1533) 등을 보내어 이의 改正을 요구하기⁷⁸⁾에 이르렀으나 明朝의 武宗은 사실을 首肯하면서도 改正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1529(중종 24)년에 聖節使 柳溥 등이 明朝의 『大明會典』이 重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곧 禮部에 奏請하여 改正할 것을 요구⁷⁹⁾하는 등 그 뒤 宣祖 14(1581)년에 奏請使 金繼輝(1526-1582)를 보낼 때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宗系를 改正해 줄 것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⁸⁰⁾

宗系辨誣를 위한 朝鮮의 外交의 노력은 國初부터 계속되었으나 明朝에서는

謝恩使李彬·閔無恤·賀正使金定卿等 回自京師 齋禮部咨文來 … 三府以宗系改正 拘留人放還 詣闕稱賀.

77) 太春秋館 編, 太宗實錄. 太宗 4年 4月 9(己卯)日條.

遣參知議政府事呂稱如京師 謝改正宗系 放還拘留人 賜列女傳也.

78)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13年 6月 16(甲申)日條.

朝鮮國王臣姓諱謹奏 … 欽差內使黃承奇等齋至告祭海嶽·山川等神祝文內節該 高麗陪臣李仁任之嗣某 今名某者 欽此先臣康獻王某 卽將本宗世系 於李仁任 不干事理 具本奏 … 臣今聽知大明會典所錄 不惟宗系未蒙改正 又加先祖所無之惡名 一國臣民惶駭罔措 … 會典所錄弑四王之說 想亦出於此等人虛捏之口 其冒稱仁任之嗣者 蓋以仁任宗強權重 久畜無君之心 指爲其嗣 則跡頗疑似 聞者易信 誣之以此耳 …

79) 春秋館 編, 中宗實錄. 中宗 24年 9月 28(庚申)日條.

聖節使柳溥·進賀使李萑等先來 通事權楨連等入來 其書狀曰 … 會典誤載本國事 有兩件宗系·惡名 是也 … 呈部送司案照 今該前因案呈到部 看得朝鮮國陪臣柳溥等呈稱 會典所載國王李諱宗系不同 乞要明辨一節 既該本部節奉太宗皇帝·武宗皇帝明旨 合無候.

80)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14年 5月 1(癸亥)日條.

以金繼輝爲辨誣奏請使 本國以改宗系之請 遣使頻仍 而中朝難其事 雖被皇旨 添入會典而未蒙頒降 時間會典纂修垂畢 機會甚重 大司諫李珥率同僚啓曰 主辱臣死 義也 宗系受誣 列聖之辱大矣 奏請使當以至誠 感動天庭 事成則還國 不成則爲埋骨燕山之計然後 庶可成事 請別擇專對之才以遣之.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오다가 1584(선조 17)년에 이르러 비로소 宗系가 改正되기에 이르렀다. 1584(선조 17)년 5월에 떠난 奏請使 黃廷或(1532-1607)이 동(1584)년 11월에 重撰된 『大明會典』의 改正된 謄本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마침내 宗系辨誣는 일단락되었던 것이며, 이에 宣祖는 中外에 赦免을 위한 敎書를 내렸던 것이다.⁸¹⁾

이에 宣祖는 1587(선조 20)년에 奏請使 俞泓을 보내 『大明會典』의 頒賜를 요청하였으며, 1588(선조 21)년에 奏請使 俞泓이 『大明會典』을 가지고 오자⁸²⁾, 宣祖는 宗廟에 宗系改正을 고하는 제사를 지내는 한편 大赦를 베풀고 百官에게도 加資를 하였다.⁸³⁾

이듬해(1589) 聖節使 尹根壽(1537-1616)가 『大明會典』 完帙을 下賜받아 돌아옴으로써⁸⁴⁾ 太祖 3(1394)년 6월부터 시작되었던 약 200년에 걸친 宗系辨誣의 外交問題는 모두 解決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를 記念하기 위하여 1590(선조 23)년에 宗系辨誣에 功을 세운 인사들에게 光國功臣이라는 功臣號⁸⁵⁾를 비롯하여 功臣錄券을 下賜하였는데, 19명의 인사가 光國功臣에 錄勳되었다.⁸⁶⁾ 光國功臣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
- 81)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17年 11月 1(癸酉)日條.
宗系及惡名辨誣奏請使黃廷或 書狀官韓應寅等奉勅而還 皇帝錄示會典中改正全文 上迎于慕華館 告宗廟 受賀 加百官階 有殊死以下 廷或·應寅及上通事洪純彥等加資 賜奴婢·田宅·雜物有差.
- 82)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1年 3月 28(辛亥)日條.
謝恩使俞泓書狀 大明會典本國宗系 惡名改正一冊 禮部題準給送 皇帝降勅事入啓 ….
- 83)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1年 5月 7(己丑)日條.
上 以宗系改正 莫大之慶 親行告祭于宗廟 遣官行祭于社稷及永寧殿 祭畢御齋殿 ….
- 84)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2年 11月 22(丙寅)日條.
聖節使尹根壽 齋大明會典全書 乃皇勅以來 上祇迎于弘化門外 御明政殿受賀 赦雜犯死罪以下 尹根壽超資 前後奉使人有功者 磨鍊錄勳事傳教 以黃廷或·俞泓·尹根壽爲首功.
- 85)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23年 2月 1(癸酉)日條.
命錄光國(改宗系之功)平難(討逆賊之功)兩勳 ….
- 86)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23年 8月 1(庚午)日條.
頒光國·平難兩勳臣券 祭告·會盟如儀 賜賚有差 大赦國內 百官陳賀 賜宴闕庭 光國爲辨宗系誣也 一等 輸忠貞誠翼謨修紀光國功臣 尹根壽(官至貳相海平府院君)·黃廷或(禮曹判書長溪府院君)·俞泓(右議政杞溪府院君)等三人 二等 輸忠貞誠翼謨光國功臣 洪聖民

<表 3> 等級別 光國功臣

| 番號 | 等級 | 功臣名 | 號 | 生 沒 年 | 職 任 | 君 號 | 諡號 | 備考 |
|----|----|-----|----|-----------|--------|-------|----|----|
| 1 | 1 | 尹根壽 | 月汀 | 1537-1616 | 貳相(贊成) | 海平府院君 | 文貞 | |
| 2 | 1 | 黃廷彧 | 芝川 | 1532-1607 | 禮曹判書 | 長溪府院君 | 文貞 | |
| 3 | 1 | 俞 泓 | 松塘 | 1524-1594 | 右議政 | 杞溪府院君 | 忠穆 | |
| 4 | 2 | 洪聖民 | 拙翁 | 1536-1594 | 吏曹判書 | 益城君 | 文貞 | |
| 5 | 2 | 李後白 | 青蓮 | 1520-1578 | 吏曹判書 | 延陽君 | 文淸 | |
| 6 | 2 | 尹斗壽 | 梧陰 | 1533-1601 | 領議政 | 海原府院君 | 文靖 | |
| 7 | 2 | 韓應寅 | 柳村 | 1554-1614 | 左議政 | 淸平府院君 | 忠靖 | |
| 8 | 2 | 尹 暹 | 果齋 | 1561-1592 | 校理 | 龍城君 | 文烈 | |
| 9 | 2 | 尹 洞 | 退村 | 1549-1614 | 工曹判書 | 茂陵府院君 | 忠靖 | |
| 10 | 2 | 洪純彥 | - | 宣祖朝 | 譯官 | 唐陵君 | - | |
| 11 | 3 | 奇大升 | 高峯 | 1527-1572 | 大司諫 | 德原君 | 文憲 | |
| 12 | 3 | 金 澍 | 寓菴 | 1512-1563 | [大司憲] | 花山君 | 文端 | |
| 13 | 3 | 李陽元 | 鷺渚 | 1526-1592 | 右議政 | 漢山府院君 | 文憲 | |
| 14 | 3 | 黃 琳 | 謙濟 | 1517-1597 | 戶曹判書 | 義城君 | - | |
| 15 | 3 | 尹卓然 | 重湖 | 1538-1594 | 巡察使 | 漆溪君 | 憲敏 | |
| 16 | 3 | 鄭 澈 | 松江 | 1536-1593 | 左議政 | 寅城府院君 | 文淸 | |
| 17 | 3 | 李山海 | 鵝溪 | 1539-1609 | 領議政 | 鵝城府院君 | 文忠 | |
| 18 | 3 | 柳成龍 | 西厓 | 1542-1607 | 領議政 | 豐原府院君 | 文忠 | |
| 19 | 3 | 崔 滉 | 月潭 | 1529-1603 | 貳相 | 海城君 | - | |

3.2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

「栢巖集」의 卷3에 수록된 雜著 중의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宗系辨誣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一段落된 1584(선조 17)년에 宣祖의 命으로 栢巖이 撰述한 것이다.

朝鮮의 建國이 天命에 의해 順理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면서 死刑囚 이외의 罪囚들을 赦免한 敎書이다.

(吏曹判書益城君)·李後白(吏曹判書追封延陽君)·尹斗壽(領議政海原府院君)·韓應寅(左議政淸平府院君)·尹暹(校理追封龍城君)·尹洞(工曹判書茂陵府院君)·洪純彥(唐陵君譯官)等七員 三等 輸忠貢誠光國功臣 奇大升(大司諫追封德原君)·金澍(追封花山君)·李陽元(右議政漢山府院君)·黃琳(戶曹判書義城君)·尹卓然(巡察使漆溪君)·鄭澈(左議政寅城府院君)·李山海(領議政鵝城府院君)·柳成龍(領議政豐原府院君)·崔滉(貳相海城君)等九員 凡十九人 以前後奉使得請及獻議製奏功效表著人也.

敎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國王은 이르노라!

茂盛하고 자잘하던 무늬가 자개비단⁸⁷⁾을 이루었도다. 璿系가 100년 이상 誣陷을 받아 오다가 典謨⁸⁸⁾가 해와 별처럼 드리워져 皇帝의 命으로 辨誣되고 皇帝께서 詔勅도 내렸으니 그 恩澤이야말로 우리나라 全域을 적시는 단비가 아니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太祖 康獻大王은 하늘이 許與하여 사람들이 歸依해왔으며, 大義名分の 바른 길을 따름으로써 忠誠과 勤實로 高麗朝에 盛大하게 드리났던 것이다. 진실로 推戴를 이루어낸 그 精誠의 먼 淵源은 新羅朝에까지 관련된 것임에도 丁寧코 悖逆의 무리들을 干涉함에 있어 그 자취마다 털끝만큼의 嫌疑도 없었던 마음은 鬼神도 알아 줄 정도였으니, 어찌 罔極한 거짓을 圖謀하였을 것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誤謬된 기록으로 代代孫孫 전해져오자 先王時節부터 항상 가슴 아픈 情理로 여겨 왔던 바이었다. 寡人은 깊은 연못에 빠진듯하고 위로는 祭祀를 받들고 아래로는 朝會를 할 때마다 無顏하고 부끄러워 잠을 자도 便安하지 않고 飲食을 먹어도 감미롭지 못하여, 그 嫌疑를 상쾌하게 씻고자 마음을 먹고 頻煩하게 呼訴하고 부탁하여 朝夕으로 항상 이 所望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왔다. 다행스럽게도 금번의 使臣⁸⁹⁾들이 황제[神宗]를 謁見하고 獨自의으로 申勅하여 丁寧코 10行的 勅書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으니, 어찌 勅書로 우리를 欺瞞할 것이겠는가. 九重宮闕이 아무리 깊고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天鑑⁹⁰⁾은 그옥이 깊은 곳까지 비추이는 법이니, 하물며 史籍에 載錄하라고 仔詳히 敎示하였으니 그 어떠한 것이겠는가! 또한 載錄된 史籍을 보내도록 諭示함에 이는 곧 宗社의 크나큰 慶事이며 마땅히 온 百姓과 더불어 기뻐할 일일지라. 오호(嗚呼)라! 訛謬를 고쳐 眞實로 되돌려 놓으시니 그 感謝한 皇恩은 報答하기 어렵도다. 欠點과 허물을 깨끗이 씻고 國運이 維新하게 되었음을 기뻐할지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敎示하노니 마땅히 知悉할지어다!⁹¹⁾

87) 萋斐成貝錦: 『詩經』 <小雅> ‘巷伯章’의 “무성하고 자잘한 무늬여 자개비단을 이루었도다!(萋兮斐兮成是貝錦)”에서 온 것으로, 小人들이 처음부터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 君子를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88) 典謨: 『書經』 <舜典>의 ‘禹謨’를 지칭하는 것이다.

89) 專對: 外國에 使臣으로 가서 獨自의으로 應對하며 能爛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90) 天監: 하늘이 地上의 善惡을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91) 金功 著, 『栢巖先生文集』. 卷3. 敎書. ‘宗系辨誣頒敕中外敎書’條.

若曰 萋斐成貝錦 璿系受誣於百年 典謨垂日星 宸翰辨枉於一札 渙號誕降於紫極 解澤盍霈於靑丘 惟我太祖康獻大王 天與人歸 義順名正 忠勤懋著於麗季 實迫推戴之誠 源派遠聯於羅朝 寧涉悖逆之族 跡未嫌於毫髮 心可質於鬼神 何圖罔極之讒 遂致傳信之謬 自先王恒抱至痛 逮寡躬若隕深淵 上以承祀 下以臨朝 慙面目之有覩 寢不安席 食不甘味 憫昭雪之無因 籲呼不避於頻煩 顯望每切於朝夕 幸茲專對之體稱 獲視申勅之丁寧

「栢巖集」의 卷3에 수록된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1584(선조 17)년 5월 에 떠난 奏請使 黃廷彧(1532-1607)이 동(1584)년 11월에 重撰된 「大明會典」의 改正된 謄本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宗系辨誣가 일단락된⁹²⁾ 뒤에 宣祖가 中外에 赦免을 위해 내렸던 敎書⁹³⁾이다.

그러나 栢巖의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宗系辨誣가 일단락된 후에 中外에 頒布하였던 敎書이나, 「宣祖實錄」에도 수록되지 않고 宗系辨誣의 決定版인 「光國志慶錄」에도 수록되지 않은 敎書이다. 따라서 栢巖의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光國志慶錄」에 수록된 <頒赦敎文書>와는 완전히 다른 敎書일 뿐만 아니라, 史料로서 귀중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敎書인 것이다.

4. 松塘 俞泓과 敎書文

「栢巖集」의 卷3에 수록되어 있는 敎書 중의 <敎咸鏡監司俞泓書>는 宣祖가 후일 平難功臣과 光國功臣으로 錄勳된 松塘 俞泓(1524-1594)에게 내린 敎書로 栢巖에 의해 撰述된 것이다.

4.1 松塘 俞泓의 評價

松塘 俞泓은 明宗朝와 宣祖朝의 文臣으로 字는 止叔이고 號는 松塘이며 諡號

十行如綸 豈王言之欺我 九重雖遠 尙天鑑之燭幽 況示纂載之詳 且垂齋送之諭 斯乃宗社之大慶 宜與臣庶而同歡 嗚呼 釐訛反眞 感皇恩之難報 滌瑕蕩垢 喜邦命之維新 故茲敎示 想宜知悉.

92)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17年 11月 1(癸酉)日條.

宗系及惡名辨誣奏請使黃廷彧 書狀官韓應寅 等奉勅而還 皇帝錄示會典中改正全文 ….

93)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17年 11月 1(癸酉)日條.

宗系及惡名辨誣奏請使黃廷彧 書狀官韓應寅 等奉勅而還 皇帝錄示會典中改正全文 上迎于慕華館 告宗廟 受賀 加百官階 有殊死以下 廷彧·應寅及上通事洪純彥等加資 賜奴婢·田宅·雜物有差.

는 忠穆이다. 松塘의 本貫은 杞溪이고 判書를 역임한 俞汝霖의 孫子이며 生員 俞縉의 아들이다.⁹⁴⁾

松塘은 1524(중종 19)년 11월 25일에 漢城 西部 盤松坊에서 出生하여 明宗 8(1553)년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司僕寺正을 거쳐 史官에 기용되고 明宗 12(1557)년 江原道暗行御史로 나갔다. 副修撰으로 檢討官을 겸직하고 이어서 兵曹佐郎·修撰·持平·吏曹佐郎·京畿道都事·兵曹正郎·校理 등을 역임하였으며, 1563(명종 18)년에 檢詳·舍人 등을 거쳐 이듬해 司僕寺正·執義 등을 역임하고 1565(명종 20)년에 同副承旨를 지냈다. 1573(선조 6)년 咸鏡北道兵馬節度使로 會寧府使를 겸직하고 이듬해(1574)에 開城府留守가 되었으며, 慶尙道觀察使·漢城府判尹을 거쳐 1587(宣祖 20)년 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吏曹判書를 지냈다. 1589(선조 22)년 鄭汝立의 모반사건을 다스린 공으로 平難功臣 3등이 되어 杞城府院君에 봉해지고 이듬해(1590) 宗系를 辨誣한 공으로 光國功臣 1등에 冊錄되었으며 1591(선조 24)년에 右議政에 올랐다. 이듬해(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원도와 함경도에 世子를 시종하고 이어 都體察使를 겸직하며 관군과의 병을 지휘하여 일본군과 싸웠다. 일본군이 후퇴하자 왕명으로 먼저 서울에 들어와 官衙와 흩어진 都城을 정리하는 등 治政의 기틀을 잡았으나 앞서 서울에서 피난할 때 자기의 가족만 먼저 피난시켰다는 東人들의 탄핵을 받고 한때 削職되었다. 1594(宣祖 27)년 좌의정이 되어 海州에 있는 왕비를 扈從하다가 객사하였다. 詩文에 능하고 藏書가 많기로 유명하였으며, 著書로는 「松塘集」이 있다.⁹⁵⁾

이러한 松塘의 行歷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史官들의 評價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94) 「杞溪俞氏族譜」에 나타나는 松塘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俞三宰(始祖, 1) - 義臣(2) - 成美(3) - 晉卿(4) - 汝諧(5) - 得瑄(6) - 僖(7) - 承桂(8) - 成福(9) - 輯(10) - 解(11) - 起昌(12) - 汝霖(13) - 縉(14) - 泓(15, 忠穆公派) - 大述(16, 忠2) - 懋曾(17, 忠3) - 植(18, 忠4) - 命顯(19, 忠5) - 祉基(20, 忠6) - 彥龜(21, 忠7) - 漢章(22, 忠8) - 崑柱(23, 忠9) - 宗煥(24, 忠10) - 致範(25, 忠11) - 鎮源(26, 忠12) - 學潛(27, 忠13) - 興穆(28, 忠14) - 炳澤(29, 忠15) - 載衡(30, 忠16) … <俞致雄編, 「杞溪俞氏族譜」, (大田, 回想社, 1965), 卷13.>

95)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540.

<表 4> 松塘 俞泓에 대한 史官의 評價

| 番號 | 年代 | 朝代 | 月日 | 內 容 | 備考 |
|----|------|-------|-------|-----------------------|------|
| 01 | 1560 | 明宗 15 | 05 21 | 性强戾自用 | 96) |
| 02 | 1563 | 明宗 18 | 07 26 | 行己雖似無檢 處心小無邪曲 | 97) |
| 03 | 1591 | 宣祖 24 | 02 01 | 以進退人物乖當 推考被遞 | 98) |
| 04 | 1592 | 宣祖 25 | 12 15 | 志節不無可尙而言計疎脫 處事或有顛倒 | 99) |
| 05 | 1593 | 宣祖 26 | 08 08 | 委政吏胥 以賑飢濟命之資 爲應求營私之地 | 100) |
| 06 | 1593 | 宣祖 26 | 08 29 | 性粗率 關於事情 動輒得咎 | 101) |
| 07 | 1593 | 宣祖 26 | 10 28 | 專事家業 見利忘義 識者譏之 | 102) |
| 08 | 1593 | 宣祖 26 | 11 05 | 憲府連啓俞泓事 答曰 右相乃勳舊股咳[肱] | 103) |
| 09 | 1593 | 宣祖 26 | 11 09 | 俞泓之不稱其位 國人所共知 | 104) |
| 10 | 1594 | 宣祖 27 | 10 17 | 俱以嗜利無恥之人 冒據具瞻之位 | 105) |
| 11 | 1594 | 宣祖 27 | 11 06 | 遭遇一時 竊據台鼎 而麤庸貪鄙 少無可觀 | 106) |
| 12 | 1594 | 宣祖 27 | 11 15 | 可謂有廉恥之心乎 | 107) |

- 96)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5年 5月 21(丙戌)日條.
俞泓 性强戾自用.
- 97)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8年 7月 26(壬寅)日條.
俞泓 行己雖似無檢 處心小無邪曲.
- 98)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24年 2月 1(戊辰)日條.
[俞]泓等 以進退人物乖當 推考被遞.
- 99)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5年 12月 15(辛丑)日條.
右議政俞泓 志節不無可尙 而言計疎脫 處事或有顛倒 屢招物議 至遞體察 ….
- 100)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8月 8(己丑)日條.
史臣曰 … 俞泓 自分衰耗 委政吏胥 以賑飢濟命之資 爲應求營私之地 使未死赤子 望哺而顛壑 甫集而旋散 吁 大夫之不可以圖存者 其謂此歟.
- 101)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8月 29(庚戌)日條.
[俞]泓 性粗率 關於事情 動輒得咎.
- 102)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10月 28(戊申)日條.
右議政俞泓 史臣曰 專事家業 見利忘義 識者譏之.
- 103)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11月 5(乙卯)日條.
憲府連啓俞泓事 答曰 右相 乃勳舊股咳[肱] ….
- 104)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11月 9(己未)日條.
諫院連啓俞泓事 … 史臣曰 俞泓之不稱其位 國人所共知 臺官之論 其亦晚矣 而尙據鼎軸 未允鑄免 國亂思良之義安在.
- 105)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0月 17(辛酉)日條.
右議政俞泓 俱以嗜利無恥之人 冒據具瞻之位.
- 106)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1月 6(庚辰)日條.
右議政俞泓 遭遇一時 竊據台鼎 而麤庸貪鄙 少無可觀.

| | | | | | |
|----|------|-------|-------|--|------|
| 13 | 1594 | 宣祖 27 | 12 01 | 前左議政俞泓卒 … 臺諫論其徒大言無實用 … 泓寬厚有器度 篤於孝行 … 立朝議論 偉然 自信甚篤 而短於才略 無所建明而罷 | 108) |
| 13 | 1594 | 宣祖 27 | 12 14 | 濫以庸鄙之資 … 見利忘義 臨危後國 | 109) |
| 15 | 1601 | 宣祖 34 | 04 30 | 平生貪污 亂後尤甚 所可道也 言之辱也 | 110) |

宣祖는 松塘에 관하여 勳舊이자 股肱인 臣下로 평가¹¹¹⁾하였다. 史官들 中에 는 마음가짐에 조금도 邪曲함이 없었다든가¹¹²⁾, 志節이 가상함이 없지 않았다¹¹³⁾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松塘의 卒記를 기록한 史官은 “寬厚하고 度量이 있었으며 孝行이 篤實하였다. 어려서 父親을 여의고 行喪하지 못한 까닭에 忌月을 맞을 때마다 27일 동안 行素함으로써 追慕의 정을 더했으며, 母親을 여의었음

- 107)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1月 15(己丑)日條.
左議政俞泓 辭職書狀 … 史臣曰 大臣之職 安危所係 當此危急存亡之日 如泓之闢茸庸資 久居鼎軸 況以扈衛中殿 遠在海州 國有大事 亦不與聞 而唯利其身 貪饕無厭 將焉用彼相哉 公論之發 非止一再 而猶不力去相位 偃然冒處 從他笑罵 及其物議益激 乃復緩緩控辭 有若塞責者然 可謂有廉恥之心乎.
- 108)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2月 1(甲辰)日條.
前左議政俞泓卒 泓陪中殿于海州 進左議政 臺諫論其徒大言無實用 因此得遞 未幾卒 泓寬厚有器度 篤於孝行 以幼失父 未克行喪 每遇忌月 輒二十七日行素 以寓追慕 喪母廬墓致毀 以非宗子 不得立祠 設考妣虛位 出入必拜告 立朝 議論偉然 自信甚篤 而短於才略 無所建明而罷.
- 109)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2月 14(丁巳)日條.
司憲府(大司憲金宇顥·執義奇自獻·掌令李鐵·持平宋諄)啓曰 左議政俞泓 濫以庸鄙之資 竊據台鼎之位 不念負荷之重 但知肥身之計 見利忘義 臨危後國 扈駕關西 重貽營產之誚 體察諸道 多行鄙陋之事 及其承命保釐 不體德意 唯急於營殖家產 忍使子遺都民 顛仆溝壑 而恬不顧恤 顯非物議 非止一再 而從他笑罵 略不悛改 今在海西 亦多貽弊 歛怨之害 其嗜利無恥之狀極矣 自今國勢方急 扶顛持危 責在大臣 豈可使貪饕鄙夫 久居具瞻之地 任其破壞國家事乎.
- 110)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34年 4月 30(丁酉)日條.
俞泓 平生貪污 亂後尤甚 所可道也 言之辱也 骨雖已朽 其名猶存 故書之.
- 111)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11月 5(乙卯)日條.
憲府連啓俞泓事 答曰 右相 乃勳舊股肱[肱] ….
- 112)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8年 7月 26(壬寅)日條.
俞泓 … 處心小無邪曲.
- 113)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5年 12月 15(辛丑)日條.
右議政俞泓 志節不無可尚 ….

때는 侍墓살이를 하며 몹시 서러워하였다. 宗子가 아니라서 立祀할 수 없는 까닭에 考妣의 虛位를 마련하여 출입할 때면 반드시 절을 하고 고하였다. 朝廷에 벼슬할 적에는 議論이 偉然하여 自信이 매우 도타웠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史官들은 松塘에 관하여 批評的인 評價를 내리고 있다. 性品이 悭悭하고 사나우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였다는가¹¹⁴), 행동에 검속함이 없는 것 같았다는가¹¹⁵), 인물을 進退시킴이 사리에 어긋나 추고를 받고 체직되었다¹¹⁶)고 평가한 史官들도 있으며, 計策을 말하는 것은 허술하고 일을 처리한 것이 더러 顛倒되어 여러 차례 물의를 불러일으켰다는가¹¹⁷), 스스로 늙었다고 여겨 吏胥들에게 政事를 맡겨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物資로써 請託을 들어주고 私利私慾을 꾀하는 밑천으로 삼으므로 함께 보전을 도모할 수 없는 大夫¹¹⁸)로 평가한 사관들도 있다.

또한 성질이 경솔하고 事情에 迂闊하여 하는 일마다 번번이 허물이 있었다든가¹¹⁹), 오로지 집안일만 일삼고 이득을 보면 의리를 잊으므로 식자들이 비난했다든가¹²⁰), 그가 자리에 걸맞지 않음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일이라든가¹²¹),

114)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5年 5月 21(丙戌)日條.

俞泓 性强戾自用.

115) 春秋館 編, 『明宗實錄』. 明宗 18年 7月 26(壬寅)日條.

俞泓 行己雖似無檢 ….

116)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宣祖 24年 2月 1(戊辰)日條.

[俞]泓等 以進退人物乖當 推考被遞.

117)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5年 12月 15(辛丑)日條.

右議政俞泓 … 而言計疎脫 處事或有顛倒 屢招物議 至遞體察 ….

118)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8月 8(己丑)日條.

史臣曰 … 俞泓 自分衰耗 委政吏胥 以賑飢濟命之資 爲應求營私之地 使未死赤子 望哺而顛蹶 甫集而旋散 吁 大夫之不可以圖存者 其謂此歟.

119)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8月 29(庚戌)日條.

[俞]泓 性粗率 關於事情 動輒得咎.

120)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10月 28(戊申)日條.

右議政俞泓 史臣曰 專事家業 見利忘義 識者譏之.

121)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6年 11月 9(己未)日條.

諫院連啓俞泓事 … 史臣曰 俞泓之不稱其位 國人所共知 臺官之論 其亦晚矣 而尙據鼎軸 未允鑄免 國亂思良之義安在.

이익을 좋아하고 염치가 없는 자인데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¹²²⁾든가, 때를 잘 만나 정승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추솔하고 비루하여 조금도 볼 만한 것이 없다¹²³⁾고 평가한 史官들도 있으며, 용렬한 사람이 오래도록 정승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자신만을 이롭게 하여 탐욕이나 한없이 부리고 있어 염치를 아는 마음이 없다든가¹²⁴⁾, 용렬하고 비루한 자질로서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고 위기에 임해서는 나라를 뒷전으로 하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이익만 탐하는 태도가 극심하다든가¹²⁵⁾, 말만 거창하지 실용이 없으며 재략이 모자라서 建명한 바가 없다¹²⁶⁾고 평가한 사관들도 있다.

특히 松塘의 死後에 어떤 史官은 “평생을 貪汚하게 지냈는데 난리 이후로 더욱 심하였다. 말을 하자면 말하는 것 자체가 욕되는 일이다. 빼는 이미 썩었지만 이름이 아직 남아 있기에 이를 기록하는 것이다”¹²⁷⁾고 酷評을 하기도 하였다.

122)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0月 17(辛酉)日條.

右議政俞泓 俱以嗜利無恥之人 冒據具瞻之位.

123)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1月 6(庚辰)日條.

右議政俞泓 遭遇一時 竊據台鼎 而繼庸貪鄙 少無可觀.

124)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1月 15(己丑)日條.

左議政俞泓 辭職書狀 … 史臣曰 大臣之職 安危所係 當此危急存亡之日 如泓之闕茸庸資 久居鼎軸 況以扈衛中殿 遠在海州 國有大事 亦不與聞 而唯利其身 貪饕無厭 將焉用彼相哉 公論之發 非止一再 而猶不力去相位 偃然冒處 從他笑罵 及其物議益激 乃復緩緩控辭 有若塞責者然 可謂有廉恥之心乎.

125)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2月 14(丁巳)日條.

司憲府(大司憲金宇顛·執義奇自獻·掌令李鐵·持平宋諄)啓曰 左議政俞泓 濫以庸鄙之資 竊據台鼎之位 不念負荷之重 但知肥身之計 見利忘義 臨危後國 扈駕關西 重貽營產之誚 體察諸道 多行鄙陋之事 及其承命保釐 不體德意 唯急於營殖家產 忍使子遺都民 顛仆溝壑 而恬不顧恤 顯非物議 非止一再 而從他笑罵 略不悛改 今在海西 亦多貽弊歛怨之害 其嗜利無恥之狀極矣 自今國勢方急 扶顛持危 責在大臣 豈可使貪饕鄙夫 久居具瞻之地 任其破壞國家事乎.

126)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27年 12月 1(甲辰)日條.

前左議政俞泓卒 泓陪中殿于海州 進左議政 臺諫論其徒大言無實用 因此得遞 未幾卒 泓寬厚有器度 篤於孝行 以幼失父 未克行喪 每遇忌月 輒二十七日行素 以寓追慕 喪母廬墓致毀 以非宗子 不得立祠 設考妣虛位 出入必拜告 立朝 議論偉然 自信甚篤 而短於才略 無所建明而罷.

127) 春秋館 編, 『宣祖實錄』. 宣祖 34年 4月 30(丁酉)日條.

俞泓 平生貪汚 亂後尤甚 所可道也 言之辱也 骨雖已朽 其名猶存 故書之.

4.2 <敎威鏡監司俞泓書>

「栢巖集」의 卷3에 수록되어 있는 敎書 중의 <敎威鏡監司俞泓書>는 1581(선조 14)년 1월에 宣祖가 후일 宗系辨誣를 完決하고 平難功臣과 光國功臣으로 策勳되는 松塘을 威鏡道觀察使로 보내면서 내린 敎書이다.

敎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國王은 이르노라!

八方을 統御함에 있어 먼 北方¹²⁸⁾에 대한 나의 근심¹²⁹⁾은 더욱 格別하도다. 한 길로 總合하여 편안하게 다스리고자¹³⁰⁾ 하였으나 職分을 다하던 사람들도 점차 사라져가고 말았도다. 이러한 人材의 부족으로 北方에 대한 念慮가 가장 時急하니 關北으로 나아가 百姓들에게 끝없는 希望을 주도록 할 것이도다. 이제와 王業의 基礎를 생각하니 漢朝도 沛邑¹³¹⁾을 잊지 못할진대, 하물며 저 威關嶺¹³²⁾을 소홀히 하면서도 唐朝와 같이 劍門¹³³⁾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겠는가. 돌아보건대 朕이 賑撫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도 어찌하여 백성들의 생계가 갑절로 더 어려워진 것이겠는가. 밭이란 밭은 荒廢化되어 土質은 地氣를 돌우지 못하고 있고 초가을에 만 들어도 서리와 눈이 내려 바람은 거의 天序를 잃은 것이도다. 마치 몸에 삼(麻桑)만을 걸친 듯 寒氣가 들고 비와 기장(稻梁)으로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궁핍(飢乏) 하도다. 守令들까지 간혹 苛酷하게 侵奪하니 하물며 鎭將(鎭將)들은 어머할 것이겠는가. 백성들은 모두 疫病(疫病)으로 죽어가고 있고 우마(馬牛)들조차도 거의 죽어 공허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방수(防戍)가 어찌 謹密할 수 있을 것이겠는가. 牆屋¹³⁴⁾조차 무너져 내려 백성들이 모두 그 보금자리를 잃었으니, 그 罪辜를 어찌 받을 것이겠는가. 평과 토끼조차도 그런 곳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실제적인 計策도 있을 수 없을 것이도다. 하물며 변방을 튼튼히 하는 일(固圍)에는 計략(謀)이 있어야 하나 이리떼와 같은 탐욕들만 跋扈¹³⁵⁾하고 있으며, 手足들은 하나같이 오랑캐에게 묶여서 오히려 원숭이처럼 속임수만을 反覆하니 그 속마음(腹心)이 어찌 城內에 있는 오랑캐와 다를 것이겠는가. 조치를 취해도 실로 잠깐 사이에

128) 遐荒: 먼 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威鏡道 地方을 의미하는 것이다.

129) 軫念: 임금이 마음을 써서 근심하거나 尊貴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事情을 돌보아 걱정하여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30) 保釐: 편히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31) 沛邑: 漢의 高祖 劉邦의 고향으로 흔히 帝王의 고향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132) 關嶺: 威興의 북쪽에 있는 威關嶺을 지칭하는 것인 듯하다.

133) 劍門: 중국 江蘇省에 있는 험한 絕壁을 지칭하는 것이다.

134) 牆屋: 담이나 지붕 등 집의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135) 跋扈: 제 마음대로 날뛰며 行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니, 오히려 成敗는 잠시 동안에 결정되는 것이도다. 賑撫하고 統御하는 데에는 반드시 遠大한 國策이 있어야 하며 政治에는 威嚴과 德望을 兼備하는 것이 중요하니, 鎮壓하고 服從시키는 要點은 全能한 才能에 있을 것이도다. 사람들은 모름지기 文官과 武官이 갈마들며 오로지 任命을 받은 대로 國事를 處理할 수 있기를 바랄지도 모르나, 그것은 오히려 民生을 裕足¹³⁶하게 하는 敏捷한 德望과는 乖離만 생기게 되는 것이도다. 하늘의 뜻¹³⁷이 朕에게 商(殷)朝의 夏后氏의 六責¹³⁸과 같은 근심을 깊어지도록 警戒하여, 그 바람이 이제 그대에게 불어감에 宋 太祖가 두터운 갓옷을 벗어준 일¹³⁹이 부끄럽지 않다. 저들의 飢寒이 마치 내 몸의 고통과도 같으니 짐에게 謀猷¹⁴⁰가 있다면 그것을 꺼내어 결점이 없는 金甌¹⁴¹에다 놓고 싶도다. 지금 그 책망이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데가 없으니 玉으로 만든 것가락으로 음식을 먹어도 감미롭지 않으며, 모든 근심이 온통 北方의 걱정에만 매달려 있도다. 이에 마땅히 善政을 베풀어 미래를 圖謀하고자 지금 당장 賢臣을 揀擇하여 어려운 職任을 맡기려 하는 것이도다. 생각건대 卿은 計慮가 深長하고 氣度가 宏豁하여 淸署에서 준수한 풍채를 드러내고 재주도 백면서생들처럼 無能하지 않아 승정의 반열에서 風聲이 우뚝하며, 백성들의 薦望도 얻은 바이고 租稅나 政務가 시급할 때에는 朕에게 주의하여 勤務하도록 上疏하기도 하였도다. 이에 卿을 威鏡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에 제수하노니 任地로 가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職任을 遂行하되 삼키지도 뱉지도 말 것¹⁴²이며, 勸善懲惡을 實施하되 너무 강하게도 부드럽게도 하지 말며 安住하지도 遊行하지도 말 것이도다. 상의한 바는 먼저 鰥寡¹⁴³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문서를 꾸밀 때도 제때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 것이며, 春秋로는 마땅히 경검(耕斂)을 덜어주고 文風도 比年¹⁴⁴보다 점차 振作

136) 裕民: 民生을 裕足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37) 天實: 하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

138) 六責: 商(殷)朝의 湯王이 7년 동안 가뭄이 들자 자신을 희생으로 삼아 桑林의 들에서 기도하며 (1) 정치를 잘 조절하지 못하였는가(政不節歟) (2) 백성들이 직분을 잃었는가(民失職歟) (3) 궁실이 크고 화려한가(宮室崇歟) (4) 여왕이 성행하였는가(女謁盛歟) (5) 뇌물이 유행하였는가(苞苴行歟) (6) 참소하는 자들이 창성하였는가(讒夫昌歟) 등의 6가지 일로 자신을 책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139) 宋祖重裘: 宋 太祖가 자신이 입고 있던 갓옷을 벗어 蜀의 정벌에 나선 장수 王全斌에게 내린 故事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勞苦를 慰勞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40) 謀猷: 計策을 의미하는 것이다.

141) 金甌: 금으로 된 사발을 지칭하는 것으로 唐朝 玄宗이 재상을 선발할 때 그 성명을 쓴 종이를 먼저 金甌로 덮고 사람을 시켜 그 이름을 맞추게 한 뒤에 비로소 임명하였다는 고사이다.

142) 不茹不吐: 『詩經』 <大雅> 烝民篇에 “世俗의 말을 들어보니 부드러우면 씹어 삼키고 강하면 뱉는다던데, 仲山甫만은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고 강하여도 뱉지 않아서 홀아비 홀아미를 구해주며 강포한 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人亦有言 柔則茹之 剛則吐之 維仲山甫 柔亦不茹 剛亦不吐 不侮矜寡 不畏疆禦)”고 하였다.

143) 鰥寡: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과 남편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시켜 진실로 警發¹⁴⁵⁾을 내어 그 효과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도다. 군사행정은 작년보다 더욱 쇠퇴하였으니 또한 당연히 訓練을 통하여 그 성적을 독려¹⁴⁶⁾하여야 할 것이며, 생각건대 여러 가지 계책을 먼저 가슴속으로 생각하였다가 손바닥 안의 일처럼 단번에 施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도다. 民風의 厚薄은 한결같이 首領의 智略에 달려 있는 것이니 천천히 敎化할 것이라는 기미는 보이지 말라. 山川이 險塞함을 周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미리 임시변통(制變)의 계책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니, 진실로 内外로 掣肘¹⁴⁷⁾도 전혀 없을 것이라 始終으로 盡力한다면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官階가 通訓大夫이니 마음대로 裁可하여 專制의 뜻을 보여주되, 大辟¹⁴⁸⁾에 관련된 罪만은 稟議하여 결단하도록 하라. 더욱이 어렵고도 慎重해야할 事情의 일을 만나 거의 하루 동안에 해결해야할 辭訟이 내려지더라도 이틀 동안의 成績이 기억되어야 할 것도다. 오호라! 卿을 멀리 북방으로 보내는 것을 걱정하듯 하면서, 오히려 冑(予)의 근심(憂)만을 덧붙여 놓듯 하도다. 행정(發政)은 오로지 엄격하고도 명백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부임하지 못하겠노라 말하지 말라. 責效¹⁴⁹⁾의 요점은 永久히 任職하는 데에 있는 것이니, 원컨대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 것도다. 羔羊의 풍속¹⁵⁰⁾과 같이 검소와 충직이 이미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며, 善政을 頌讚하는 노랫소리¹⁵¹⁾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敎示하노니 마땅히 知悉할지이다!¹⁵²⁾

144) 比年: 近年과 같이 가까운 몇 해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145) 警發: 圓悟警發의 약칭으로 奇拔한 表現으로 警覺心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46) 責成: 成績을 督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47) 掣肘: 남을 干涉하여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48) 五辟: 옛적에는 墨刑·劓刑·剕刑·宮刑·大辟刑을 五辟이라 하였으나, 隋朝 이후로는 笞·杖·徒·流·死를 五辟 또는 五刑이라 한다.

149) 責效: 명령한 바의 일을 잘 하도록 요구하고 성적이 나쁠 때는 이를 꾸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50) 羔羊의 풍속: 절검을 숭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詩經』 <召南> ‘羔羊’에 의하면 羔羊은 南國이 文王의 敎化를 받아 직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節儉을 숭상한 것을 칭송하여 지은 詩의 篇名이다.

151) 蔽芾: 지방관의 善政을 후세 사람들이 두고두고 사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詩經』 <召南> ‘甘棠’에 “무성한 저 감당나무 가지를 자르지도 말고 휘도록 하지도 말라. 召伯이 머무셨던 곳이니라!(蔽芾甘棠 勿剪勿拜 召伯所說)”라고 하여 南國을 巡行하면서 文王의 정사를 편 召公의 덕을 추모하였다.

152) 金功 著, 『栢巖先生文集』, 卷3. 敎書. ‘敎威鏡監司俞泓書’條.

王若曰 臨八方而統御 軫念倍切於遐荒 總一路而保釐 盡職尤在於凋敝 是材難最急於北顧 舉民窮望哺於西歸 念茲王迹所基 漢不忘於沛邑 況彼關嶺攸隔 唐可保於劍門 顧予撫綏之雖勤 奈民生理之倍苦 有田汚萊 土脈不得其地 纔秋霜雪 風氣多失其天 寒猶靡臬之在身 飢乏稻粱之闕口 守令或苛於侵漁 況在鎮將 人民盡殲於癘疫 亦及馬牛 死徙

『栢巖集』의 卷3에 수록된 <敎威鏡監司俞泓書>는 1581(선조 14)년 1월에 宣祖가 松塘을 威鏡道觀察使로 보내면서 내린 敎書이다. 그러나 『宣祖實錄』이나 松塘의 詩文集인 『松塘集』에는 收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栢巖의 <敎威鏡監司俞泓書>는 宣祖朝의 北邊事情을 짐작할 수 있어 史料로서 귀중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敎書인 것이다.

5. 結 論

본고는 朝鮮時代 宣祖朝·光海君朝의 文臣이었던 栢巖 金功(1540-1616)의 生涯와 思想을 중심으로 그가 찬술한 敎書文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와 <敎威鏡監司俞泓書>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栢巖 金功은 希玉이고 號는 栢巖이며, 본관은 禮安이다. 저술로는 『栢巖先生文集』 6卷 4冊이 있다.

(2) 栢巖은 7세에 家學을 受學하고 1552(명종 7)년에 嘯臯 朴承任(1517-1586)과 錦溪 黃俊良(1517-1563)의 문하에서 受學하였으며, 1557(명종 12)년에는 退

殆極於空虛 防戍安保其謹密 撤其牆屋 燕雀皆失其巢 投以罪辜 雉兔不安其所 既實邊之無策 況固圉之有謀 跋扈狼貪 手足當繫於山獠 反覆狙詐 腹心詎輸於城胡 措畫苟失於斯須 成毀恐在於呼吸 撫御必有長策 政貴威德之兼 鎮服要在全才 人須文武之竝 惟冀授任而謀國 反乖敏德而裕民 天實儆予 愍負商后之六責 風其吹汝 愧擁宋祖之重裘 彼飢寒猶病乃身 有謀猷若出諸己 受金甌而無缺 責莫重於我東 舉玉筋而不甘 念常懸於有北 是宜宣化而懷遠 所當擇賢而投艱 惟卿計慮深長 氣度宏豁 馳俊彩於清署 才非白面之無能 聳風聲於崇班 望繫黎首之得所 肆當賦政之急 屬予注意之勤 茲以卿爲本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 往盡乃心 務學厥職 不茹不吐 勸懲勿撓於剛柔 匪安匪遊 咨度先及於繆算 簿書不期於時日 耕斂當省於春秋 文風稍振於比年 固宜警發而求效 武事尤替於往歲 又當訓練而責成 惟群策先定於胸中 俾一道可運於掌上 民風厚薄 舉皆領略 毋緩轉化之機 山川險塞 無不周知 豫懷制變之策 苟無掣肘於內外 何難盡力於始終 官通訓而擅裁 用示專制之意 罪大辟而稟斷 益著難慎之情 庶存一日之詰言 以期二暮之成績於戲 念卿于邁 付予之憂 發政惟貴於嚴明 罔曰不克 責效要在於永久 願勿懷歸 儉直既著於羔羊 歌頌可繼於蔽芾 故茲教示 想宜知悉。

溪 李滉(1501-1570)의 門下에서 受學하였다. 1576(선조 9)년 3월에 37세로 文科의 丙科로 及第하여 出仕한 후 말년에 內職으로 成均館大司成·司憲府大司憲 등의 주요 職責을 歷任하였으며, 外職으로는 漢城府左尹 등을 歷任하였다.

(3) 栢巖은 忠直한 爲政思想과 勤勉充實한 牧民思想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奉先思想과 顯揚思想 그리고 愛鄉心과 儀節心도 강한 人物이었다.

(4) 「栢巖先生文集」卷3의 敎書篇에는 栢巖이 王命으로 起草한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와 <教咸鏡監司俞泓書> 등의 敎書가 수록되어 있다.

(5)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1584(선조 17)년 5월에 떠난 奏請使 黃廷彧(1532-1607)이 동(1584)년 11월에 重撰된 「大明會典」의 改正된 謄本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宗系辨誣가 일단락된 뒤에 宣祖의 命으로 栢巖이 撰述한 敎書이다. 朝鮮의 建國이 天命에 의해 順理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면서 死刑囚 이외의 罪囚들을 赦免할 것을 中外에 頒布한 敎書임에도 「宣祖實錄」에 收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光國志慶錄」에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光國志慶錄」에 수록된 <頒赦敎文書>와도 완전히 다른 內容의 文章이다. <宗系辨誣頒赦中外敎書>는 史料로서 귀중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敎書이다.

(6) <教咸鏡監司俞泓書>는 1581(선조 14)년 1월에 宣祖가 후일 宗系辨誣를 完決하고 平難功臣과 光國功臣으로 策勳되는 松塘을 咸鏡道觀察使로 보내면서 내린 敎書이다. 宣祖의 命으로 栢巖이 撰述한 敎書임에도 「宣祖實錄」에는 물론 松塘 俞泓의 詩文集인 「松塘集」에 收錄되지 않고 있다. <教咸鏡監司俞泓書>는 宣祖朝의 北邊事情을 짐작할 수 있어 史料로서 귀중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敎書이다.

<참고문헌>

金功 著, 金璋 編. 「栢巖先生文集」.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英祖 48(1772)].

- 金虎勇. 「光國志慶錄」에 관한 研究. 淸州, 淸州大學校大學院, 2007. 碩士學位論文.
- 金虎勇. “「光國志慶錄」에 관한 研究.” 「古印刷文化」. 第14輯.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7. 61-108.
- 栢巖先生儒稷 編. 「栢巖先生略傳」. 榮州: 栢巖先生儒稷, 2008.
- 朴文烈. 「忠北의 冊版」. 學術叢書2. 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6.
- 朴文烈. “「光國志慶錄」의 版本과 校勘.” 「古印刷文化」. 第14輯.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7. 179-220.
- 朴文烈. “栢巖 金功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8輯. 淸州: 淸州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2009. 79-111.
- 俞泓 著, 俞伯曾 編. 「松塘集」.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仁祖 20 (1642)].
- 李櫛 等受命編. 「光國志慶錄」.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英祖 20 (1744)].
-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春秋館 編. 「中宗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春秋館 編. 「明宗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春秋館 編. 「光海君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